어디가 깨달음의 도량인가

현불논단



준한 스님
서울 홍대선원 주지

넓을 홍(弘), 큰 대(大). 넓고 크게 마음을 일으켜 걸림없이 대자대비 하라(廣大圓滿 無碍大悲心). 한없이 넓고 큰, 두려움 없는 대자대비심.

도시 한복판. 그것도 서울에서 가장 젊고 빠르고 소란스러운 곳, 홍대에 자리 잡은 홍대선원. 사람들은 묻는다. "왜 그 시끄럽고 복잡한 곳에 절을 세웠습니까?"

출가 후 10여 년이 지난 무렵, 소백산 양백골 암자에서 1000일 동안 두문불출하며 살았다. 고독 속으로,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다. 1000일 기도 회향 100일을 앞두고 운명처럼 하나의 상황이 펼쳐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홍대 인근의 큰 게스트하우스가 문을 닫은 것이다. 건물 주인인 신도 보살님의 간청과 함께 주소가 적힌 쪽지 하나를 받았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3가길 8-3. 이제 곧 회향인데 이 무슨 인연인가. 세상으로 들어가 시주 은혜에 밥값을 하라는 뜻인가.

7일 동안 한 생각에만 머물기로 했다. 매일 예불하고 농사짓고 도반들과 함께 먹고 공부하며 살았다. 지금처럼 살아도 충분했다. 소박했고 한가로웠다. 그래서 결론은 분명했다. 하지 말자. 한 생각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생각이 올라왔다. 이 화두의 열쇠는 'NO'였다. 'NO'를 뛰어넘어

출가 15년 청년 마음 모인 도심으로
세계가 함께 불교 만나는 홍대선원
마음 중생심 돌이킬 때 대승 공양

야 풀리는 화두. 'YES'도 옳고 'NO'도 옳다면? 에라 모르겠다, 'Yes'다. 산중생활 15년 만에 나는 도심으로 들어갔다.

홍대입구역과 신촌역에서 천천히 걸어 7분. 태어난 동네로의 회귀이자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마음이 가장 밀집한 현장.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난 주택가의 6층 건물. 도반 백담 스님과 도명 스님, 그리고 몇몇 청년들과 망치를 들고 벽부터 철거했다. 불자, 무종교인, 외국인들이 모여들었고 1년 동안 공사장에서 함께 먹고 자며 공간을 만들어 갔다. 수익은 없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했다. 지금 여기, 오직 할 뿐.

우리가 만든 것은 '절'이면서 동시에 '게스트하우스'였다. 참선, 명상, 요가, 채식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공간. 팬데믹이 끝나갈 무렵, 막혀 있던 숨구멍이 열리듯 사람들이 찾아왔다. 특히 한류를 따라온 세계의 청년들에게 우리는 가장 오래된 정신의 뿌리, 불교라는 거울을 조용히 내밀었다. 지난 3년간 50여 개국에서 4만여 명이 다녀갔다. 4개국, 8명이 출가 발심의 인연을 맺었다.

홍대선원에서는 사부대중이 함께 살고 함께 일한다. '중생공양이 제불공양이다.' 소백산 은거인 석불당 봉철 선사께서 내려 주신 이 가르침을 홍대선원의 뿌리로 삼았다. 그러나 모든 공양의 시작은 자기 마음부터다. 자성중생을 서원하고 자기 마음의 중생심을 돌이킬 때 비로소 대승의 공양이 이뤄진다.

매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초를 켜고 좌복을 정리한다. 각지에서 온 공양물을 세계의 사람들과 나누고 칠판에 적어 하루에 한 번은 보며 다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다. "왜 홍대에 절을 세웠습니까?" 나는 다시 묻는다. "어디가 깨달음의 도량인가."

휴게소에서 쉬어 가는 한 해

세간과 출세간



이미령
칼럼니스트

우리 한국 사람은 새해를 두 번 맞는다. 양력 1월 1일을 공식적인 설로 지정하고 관공서 등 사회 곳곳에서 이날을 새해 첫날이라 여기면서부터 양력과 음력 두 차례의 설을 쇠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며 음력설을 없애려 했지만 쉽지 않다. 우리 민족에게 떡국 먹는 날은 음력 1월 1일이기 때문이다.

설이 두 번 있다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새해에 근사한 계획을 세웠지만 2026년 1월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흐지부지돼 버렸다면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음력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목표는 단순하게 잡았다. '휴게소에서 쉬어 가기'.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라는 안내 문구를 자주 보게 된다. 졸음쉼터도 곳곳에 마련돼 있다. 그런 문구와 시설을 볼 때마다 고속도로라는 것이 속도를 높여 내달리는 도로의 역할만을 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대로 잘 쉬는 법을 익히게 하기 때문이다. 잘 쉬어야 잘 달릴 수 있다. 잘 달린다는 것은 빨리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뜻보다는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기분 좋게 달려서 도착한다는 말이다. 잘 쉴 수 있는 공간이 휴게소다.

〈묘법연화경〉 '화성유품(化城喩品)'을 읽을 때면 고속도로 위 휴게소가 떠오른다. 그 오랜 옛날 상인들은 저마다 낙타 등에 귀한 상품을 한 보따

사막 건너는 상인 안내 길잡이
잘 쉬게 해 무사 여정 이끌어
인생길 잘 걷도록 잘 쉬는 해 되길

리 싣고 사막을 가로질렀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는 자신들을 이끌어 줄 길잡이였다. 길잡이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 길이 얼마나 길고도 험한지, 얼마나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길만 알아서도 안 된다. 자신을 따르는 상인들의 피로도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곳에서 쉬게 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막막한 사막에 쉼터가 어디 있으랴. 경전에서는 '유능한 길잡이가 짐짓 요술로 근사한 성을 하나 만들어 내었다[化城]'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 진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잘 도착했다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길잡이는 사람들이 잘 쉬고 나서 다시 힘을 내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격려해서 먼 길을 걸어 무사히 도착하게 한다. 경전은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이 이와 같음을 밝히며 성불에 이르는 길에서 부처님의 역할을 비유로써 설명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내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은 상인들을 푹 쉬게 한다는 표현이다.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게 하면 무리가 따르는 법이다. 너무 힘들게 쟁취하면 열매는 달콤하기는커녕 허망함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 그래서 지혜로운 길잡이는 사막을 건너는 대상들을 잘 쉬게 했다. 잘 쉬면 굳이 길잡이가 채근하지 않아도 상인들은 저마다 길 떠날 채비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지만, 불교는 서울로 '잘' 가는 것을 중하게 여긴다. 고속도로에 휴게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고속도로 같은 내 인생길에서 질주본능을 잠시 내려놓고 올 한 해는 휴게소에서 반드시 쉬려 한다. 휴게소를 찾지 못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당신은 이미 휴게소에 도착해 있음을 알아차리시길 바란다.

社 說

'마음 안보' 불교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올해 조계종의 핵심 종책은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로 요약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마음 문명 불교' 구상과 선명상을 통한 '마음 안보' 종책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심리적 위기와 공동체 붕괴 현실에 대한 불교적 응답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오늘날 우울과 불안, 분노와 고립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됐다. '마음 안보'란 표현이 낯설지 않은 이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계종이 불교 수행의 핵심인 명상과 마음공부를 통해 국민 정신 건강 기여를 천명한 것은 종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불교가 '국민 정신 건강 기여' 천명
제도적 기반으로 삶의 변화 이뤄야

특히 선명상을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 평안 훈련'으로 규정한 점은 의미가 크다. 이는 불교 수행을 사회적 자산으로 환원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권위나 배타성을 앞세우기보다 수행의 효용을 사회와 공유하겠다는 태도는 한국불교가 오랫동안 고민해 온 대사회적 역할의 한 방향을 분명히 제시한다.

'국민 평안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 계획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이다. 연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과 현장 보급을 총괄하는 전담 기구가 마련된다면 선명상은 일회성 유행을 넘어 장기적인 공공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명상이 교육·보건·복지 영역과 연계돼 어린이와 청소년, 직장인과 노년층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된다면 그 사회적 파급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구상이 선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선명상의 공공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종교적 언어와 형식은 최소화하고,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평가를 병행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종단 내부의 인식 전환과 역량 결집 또한 중요하다. 선명상과 마음공부를 종단의 핵심 수행·포교 영역으로 인식하고, 사부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선 사찰이 지역사회의 '마음 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프로그램 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중앙 차원의 정책은 현장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진우 스님이 강조한 화쟁 사상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 강화 역시 '마음 안보'와 깊이 맞닿아 있다. 선명상과 마음치유 활동이 사회적 약자 지원, 자살 예방, 재난 치유와 결합될 때 비로소 불교의 자비는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실천이 된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다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 안보' 종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법과 제도, 인재 양성과 재정 구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 종책은 종단의 중장기 과제로 안착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마음의 방향'을 잃어 가고 있다. 이럴 때 불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여는 스스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길을 제시하는 일이다. 조계종이 선언한 '국민 마음 평안'과 '마음 안보'가 구호를 넘어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70년(2026) 1월 21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